

美·日 호황인데...韓 경마도 온라인 발매 필요

낙찰률 35%·총액 6억9940만원 관련 단체, 온라인 발매 촉구 시위 미국, 6월 경매 낙찰률 65% 기록 일본, 낙찰률 100% 경이로운 결과

22일,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6월 내륙 국내산마 경매'가 열렸다. 총 63두가 상장됐는데 낙찰률은 35%(23두)를 기록했다. 경매 최고가는 5020만 원, 낙찰 총액은 6억994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경매보다 낙찰총액과 평균낙찰가는 소폭 늘었지만 낙찰률이나 최고 경매가는 오히려 낮아졌다.

●2019년 대비 낙찰률 10% 이상 떨어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경주마 경매 시장은 아직까지 예전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내륙경매의 경우 4월 경매가 전년 동기 대비 낙찰률은 20% 감소했으며 낙찰총액도 62% 줄었다. 3월과 5월에 진행된 제주 경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19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낙찰률은 회복이 요원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김보현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전임직 노동조합 등 관련단체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생산자, 조교사, 마주 등 18개 소속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위)도 온라인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제한 없는 발매 환경으로 경매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 오칼라 브리더스 경



4월 진행된 미국 오칼라 브리더스 경매(OBS)에서 87만5000달러(약 10억 원)에 낙찰된 경주마.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매(OBS)는 6월 경매에서 560마리의 2세 마가 2449만 달러(약 27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2015년 2361만 달러(약 267억 원)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페시그-팁튼사의 걸프스트림 경매(2세)도 3월 67마리의 말이 총액 2536만 달러에 팔렸다. 낙찰률도 63%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낙찰총액 등은 줄었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지금까지 23마리의 컨터티 터비 우승마를 배출한 킨랜드 경매도 올해 1월과 4월에

열렸다. 1월에 총 963마리의 말이 팔렸고 거래규모는 500억 원이 넘었다.

●일본, 경매 낙찰 100% 기록 쏟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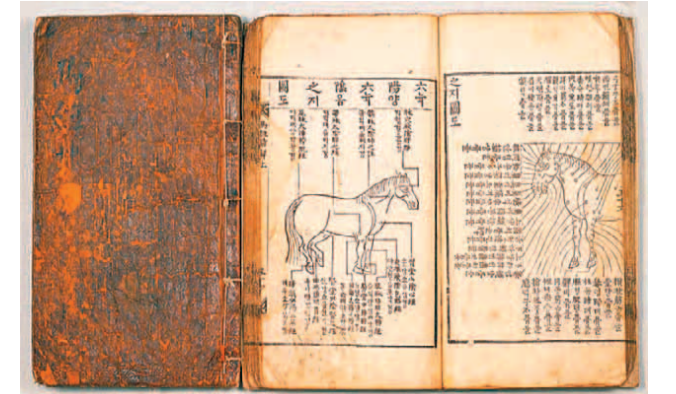
일본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세마 경매에서 249두 중 229두가 낙찰되며 낙찰률 92%를 기록한 셀렉트 경매(1세)는 2년 연속 총액 100억 엔(약 1025억 원)을 넘었다. 올해 일본 경매에서는 '낙찰률 100%'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 5월에 열린 치

바 더러브릿 경매(2세)에서는 상장된 52두 모두가 낙찰됐으며 판매 총액은 15억 2856만 엔(약 156억 원)의 신기록을 기록했다. 2세마가 대상인 JRA 브리즈업 경매도 상장된 73두 전체가 낙찰됐다.

국내산마 경매는 이제 7월5일 제주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현재 145두가 상장 예정이며 이번 경매는 사전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홈페이지(ktba.co.kr)를 통해 브리즈업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전염병의 시대, 말과 백신 이야기



조선 인조 때 이서(1580~1637)가 국내 수의학 서적과 중국의 수의학 서적을 간추린 후 이해에 편리하도록 그림을 넣어 국문으로 번역한 마의서.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전염병 백신 예방접종 중인 말. 마사회와 농식품부는 매년 2만여 두 마필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조선시대 마의 파견해 '마역' 제사 현재는 매년 상반기에 백신접종

천연두, 흑사병 등 인류 역사를 뒤흔든 전염병은 사람만이 겪은 문제가 아니다. 말 역시 다양한 전염병이 존재해왔다. 말의 전염병은 '마역'으로 불렸다.

말은 운반 및 생산의 중요 수단이었기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것은 고려 인종 때인 1142년으로 마역이 발생하자 지방에 일관, 즉 천문을 관장하는 관리를 파견해 병마의 퇴치를 맡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각 도의 중앙에 마단을 세우고 마의를 파견해 말과 관련된 마조(말의 조상) 등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함께 슬퍼하고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마의는 당시 수의학의 최고봉이던 존재로 사복시라는 관청에 10여 명이 배치되었다.

요즘은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전국 2만여 두 마필을 대상으로 전염병 방역활동을 진행한다. 말인플루엔자와 일본뇌염 등 두 가지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매년 상, 하반기 시행하는데, 올해 5~6월 상반기 접종을 완료했고 하반기 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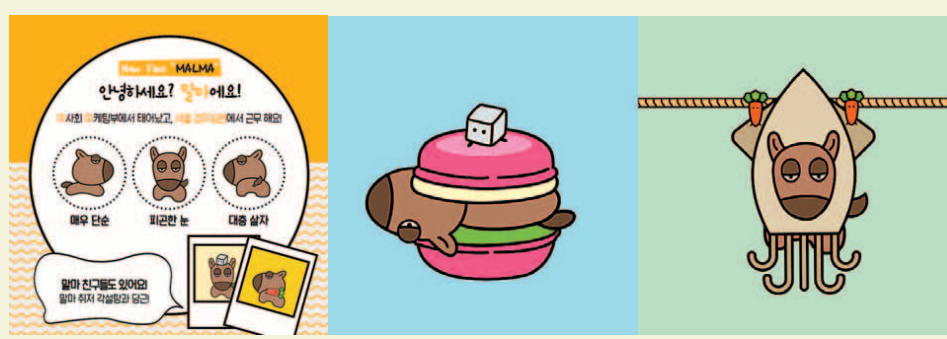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마사회 새 캐릭터 '말마' 공개 SNS 통해 웹툰·애니메이션 선봬

한국마사회는 SNS를 통해 새 캐릭터 '말마'(MALMA)를 공개했다.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생겼다. 한문 마가 떠오를 만큼 이름도 단순하다.

세상의 모든 '마'를 보여주겠다는 말마는 가리'마', 파노라'마', 마그'마'와 같은 언어유희 웹툰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음식편을 통해 '마'가 들어간 다양한 음식으로 변한 말마를 선보였다. 말마 웹툰과 애니메이션은 한국마사회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한국마사회의 새 캐릭터 '말마(MALMA)'.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스포츠승부예측게임·홀덤

스포츠승부예측게임 '월드스포벳' 오늘부터 서비스

축구·야구 등 국내외 인기 종목 대상 환전이 불가능한 사이버머니만 사용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베팅 게임이 찾아온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게임머니를 걸고 즐기는 스포츠베팅은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이자 건전한 게임문화다.

㈜월드스포는 25일 스포츠승부예측게임 '월드스포벳'을 공식 론칭한다. 실제 스포츠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월드스포벳'은 지난 5월 베타버전 출시 이후 다양한 즐길거리로 무장하고 대중 앞에 나선다.

월드스포의 '월드스포벳'은 게임 내 재화를 활용해 스포츠경기의 승부패·핸디캡·언더오버와 같은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실제 전 세계 스포츠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 인

기 프로스포츠 리그는 물론 EPL,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A, MLB, NBA 등 해외 인기 리그와 아이스하키, 테니스,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스포츠승부예측게임은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현금이나 환전 가능한 재화가 아닌 환전 불가능한 사이버머니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웹보드 규제 완화와 함께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도 합법적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다수의 게임회사들 또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진출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NHN은 자사의 20년 웹보드 게임 노하우를 접목한 스포츠승부 예측게임 '한 게임승부예측'과 넷마블 자회사인 잼팟도 비슷한 시기에 '윈조이스포'를 출시하며 스포츠승부예측 게임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대형 웹보드 게임사들이 진출하는 등 앞으로는 스포츠승부 예측게임 산업의 확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월드스포벳은 지난 5월 클로즈 베타 테스



새로운 스포츠승부 예측게임 '월드스포벳'이 25일 정식 론칭한다.

트를 성황리에 마쳤고, 이번 KMG의 홀덤 토너먼트인 KPC 메인 대회(부산) 일정에 맞춰 25일 첫 선을 보인다.

이도경 객원기자 revolej@hanmail.net

코리아포커챔피언십 부산, 내일부터 이틀간 개최

KMG 주관 국내 최대 홀덤 대회 예선전 철저한 방역으로 박수 받아

㈜KMG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홀덤인들의 대축제 '제3회 코리아포커챔피언십(KPC·Korea Poker Championship) 부산'이 26일부터 이틀간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농심호텔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개최된다.

코리아포커챔피언십은 제1회 대회부터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를 달고 대한민국 홀덤 플레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 중 최초로 GPI(글로벌포커인덱스) 인증을 받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 12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 4월부터 3개월 여에 걸쳐 전국 100여 개의 KMG 펍에서 진행된 예선전을 통해 초대권을 획득한 선수들만이 오는 26일부터 본선을 치르게 됐다. 연인원 만여 명이 참가한 예선전은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켜 단 한



제3회 코리아포커챔피언십(KPC)이 26일 부산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열린 KPC제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입상자들. 스포츠동아DB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대한민국 최대 홀덤 대회로 안전하게 치러졌다.

본선대회 첫날인 26일에는 'KPC 메인 이벤트 Day 2', 'KMG 하이roller Day 1'이 펼쳐지고 27일 2일째 행사에서 최후의 생존자 10명을 가리게 된다. 이후 10명만이 참가하는 하이라이트인 메인이벤트 파이널은 당일 오후 장소를 KMG 문현 스튜디오로 옮겨 진행된다. 메인이벤트 파이널은 유튜브로 현장 생중계된다. 이도경 객원기자 revolej@hanmail.net